

Transglutaminase를 첨가한 근원섬유 단백질과 카제인 염 혼합액의 배양시간과 온도조건에 따른 물성 변화

황지숙 · 진구복*

전남대학교 동물자원학부 식육과학연구실

서 론

최근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육제품 분야에서도 식염이나 지방과 첨가물들의 함량을 줄인 웰빙 식품들이 개발 중이다. 그러나 육제품 가공 시 중요한 첨가물인 식염과 지방의 함량을 줄이면 조직적으로나 저장성 등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염, 저지방 육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과 식염을 대체할 첨가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. Transglutaminase(TGase)는 밀, 난, 우유 및 대두단백질과 같은 단백질에서 내부 그리고 외부의 ϵ -(γ -glutamyl)lysine 교차결합(G-L 결합)을 촉매 시키는 작용을 한다. 이 효소와 식품 단백질의 겔화와 중합반응은 물리화학적인 특징을 변형시킴으로써 많은 식품의 품질, 특히 물성에 영향을 준다 (Tseng and Lai, 2002 ; Ramirez and Xiong, 2003). 특히 TGase와 카제인 염을 같이 사용했을 때 조직감이 더 좋아진다고 보고하였다(Killic, 2003). 한편, 단백질은 가공 시 가열감량을 줄여주고, 용해성, 유화성, 겔화 등의 다양한 기능성을 더해주어 여러 가지 가공 식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(Keeton, 1996). 단백질 중에서도 우유단백질, 그 중에서도 카제인 염은 표면 단백질 분자가 유화되는 동안 지방-물 표면에 급속하게 흡수되어 정전기와 입체 안정성의 결합을 통해 오랫동안 유화 안정성을 유지시켜준다. 또한 다른 단백질에 비해 열에 안정적이고 오랜 열처리에도 응고되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육제품 분야에서도 첨가물로 써 많이 이용, 연구되고 있다.(Fox and McSweeney, 2003). 따라서 본 연구는 근육 단백질과 우유 단백질간의 상호작용에 촉매제로써 TGase와 카제인염의 식육 가공 공정의 최적화를 위한 온도와 배양시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.

재료 및 방법

1. 시료 준비

Myofibrillar Protein(MFP)은 돈육의 등심부위를 이용하여 4배의 0.1 M NaCl, 50 mM Na₂HPO₄ buffer로 3번 원심분리 시키고, 그 pellet을 다시 8배의 0.1 M NaCl로 원심분리시켜서 추출하였다(Xiong, 1993). 추출된 MFP를 Lowry 정량(Lowry et al., 1951)을 이용해 단백질 함량을 구하였다. 처리구는 근원섬유 단백질, 근원섬유 단백질과 카제인 염(Sodium Caseinate,

SC)의 혼합액(1:1), 카제인 염에 TGase를 각각 첨가하여 사용하였다. 배양온도는 4, 37°C로, 배양시간은 0, 0.5, 2, 4시간으로 설정하여 실험하였다.

2. 열량 분석기를 이용한 가열 중 단백질의 열량 변화

MFP, SC, MFP:SC(1:1) (단백질 농도 4.5%)에 TGase를 1:10(효소:기질) 비율로 첨가하고 배양시간과 온도에 따른 열안정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(DSC, S-650, Scinco, Seoul, Korea)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. 시료를 알루미늄 캡슐에 정확히 12 mg을 첨가하여 봉합한 후 10~80°C까지 1분당 10°C씩 증가하면서 그 변화를 측정하였다.

3. 전기영동 (Sodium dodecyl sulfate-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, SDS-PAGE)

Mini protein II electrophoresis assay unit(Bio-Rad Laboratories, Richmond, CA)을 이용하여 Laemmli(1970) 방법에 준하여 separation gel과 stacking gel을 각각 12%, 3%의 polyacrylamide gel을 이용하여 단백질을 분리하였다. 추출한 단백질은 standard sample buffer와 혼합하고 불용성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100°C의 끓는 물에 5분 동안 가열하고 원심분리를 시켜 loading한 후 150 V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분리시킨 후, 겔을 떼어내어서 1% Coomassie brilliant blue R-250을 넣은 염색용액에 넣고 Roker(Model RK-1020, New power ENG. Co., Ltd)에서 가볍게 진동을 주면서 30분 동안 염색시켰다. 염색된 겔은 중류수로 1번 세척 후 30분 동안 탈색시킨 후 보관용액에 보관하였다.

4. 점도/겔 강도 측정

MFP, SC, MFP:SC(1:1) (단백질 농도 4.5%)에 1:10(효소:기질)의 비율로 TGase를 첨가하고 점도계(Viscometers, RC01-R, Rheotec, Germany)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. 겔 강도는 점도측정 샘플과 동일한 방법으로 샘플링하고 80°C에서 30분 가열한 후 Instron Universal Testing Mashine(Model 3344, Instron, USA)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. 탐침은 Flat Faced Probe를 사용하였다.

결과 및 고찰

1. 열량 변화

열량 변화는 주로 Myosine의 변성온도인 59°C, Collagen의 변성온도인 66°C 그리고 Actin의 변성온도인 82°C 부근에서 3개의 주요 피크를 보이며 각 단백질 별로 열량 변화 패턴이 상이하게 나타났다(Fig. 1). 이러한 피크는 Burnton 등(2005)과 Ramirez-Suarez 등(2005)의 결과와 유사하며, 특히 근원섬유 단백질과 카제인 염 단백질의 혼합액은 근원섬유와 카제인 염 단백질 각각의 피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. 배양시간에 따른 TGase의 반응에 있어서 Xiong 등(2003)은 배양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피크가 약간 더 높은 온도로 이동한다고 보고된 것과는 다르게 2시간과 4시간이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. 또한 배양온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 4°C에 비하여 37°C에서 열량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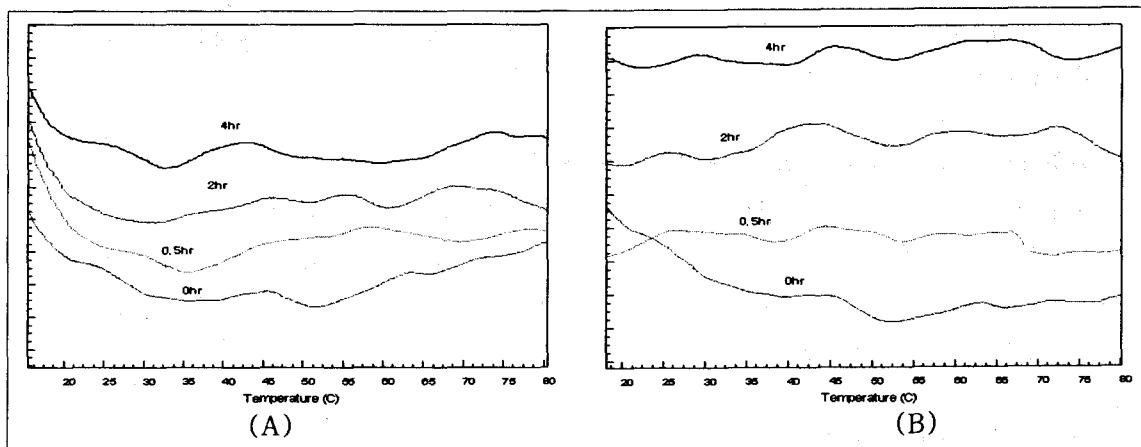


Fig. 1.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of myofibrillar/ sodium caseinate mixture as affected by incubation time and temperature. (A) = 37°C, (B) = 4°C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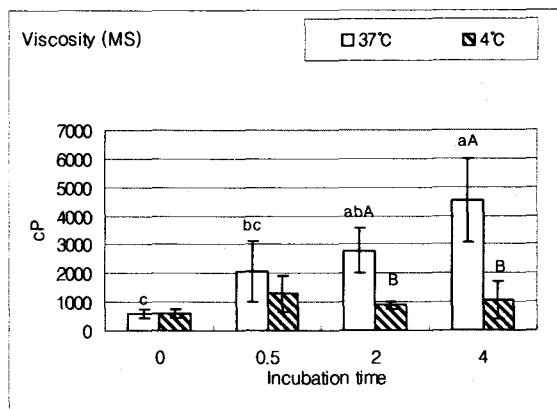


Fig. 2. Viscosity of myofibrillar protein/sodium caseinate mixture as affected by incubation time and temperature.

^{a~c} Means with same letter with increased incubation time are not different ($p>0.05$).

^{A,B} Means with same letter at different incubation time are not different ($p>0.05$).

2. 점도

37°C의 경우 MS에 TGase를 반응시킨 후 2시간 배양했을 때부터 점도의 차이가 나타났다. 0, 0.5시간보다는 2, 4시간 배양했을 때 유의적으로 점성이 높게 측정되었으나 2시간과 4시간 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(Fig. 2). 반면에 4°C에서는 배양시간에 따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37°C와 비교하여 2시간 배양하였을 때 유의적인 차이를 더 낮게 나타났다. 이 결과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도가 감소한다는 이전연구 결과와 다른 경향을 나타냈으며 TGase가 4°C의 낮은 온도보다는 37°C에서 활성을 더 크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. 따라서 이 결과는 곧 TGase가 효소로서 낮은 온도에서는 활력이 저조한 효소 자체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사료된

Table 1. Gel strength of myofibrillar protein(MFP) as affected by incubation time and temperature

	Incubation time				Incubation temperature	
	0	0.5	2	4	37	4
MFP	8.30±2.78 ^a	7.41±2.36 ^a	8.57±4.86 ^a	6.16±1.19 ^a	7.18±1.76 ^A	8.04±4.03 ^A

^{a,b} Means with same superscript in a same row are not different ($p>0.05$).

다(Xiong, 2003).

3. 젤 강도

겔 강도는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4°C에서 높은 값을 나타냈지만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(Table 1) ($P>0.05$). 단백질의 젤화는 식육 가공에 있어서 조직감에 관여하여 육제품의 품질적인 특성을 부여한다. 카제인 염 단백질의 젤화에 있어서 배양시간에 따른 변화는 배양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젤 강도가 증가함을 보였지만, 100분 이후부터는 유의차를 나타내지 않았다(Sakamoto, 1994). 반면에 TGase를 첨가할 경우 젤화는 진행되지만, 이전 결과와는 다르게 배양시간에 따라 유의차를 보이지 않아 TGase의 젤화는 배양시간과 무관함을 알 수 있었다.

4. 전기영동

TGase를 첨가한 후 배양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분자 밴드가 사라지면서 고분자의 biopolymer가 형성된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보고되었다(Fig. 3)(Xiong, 2003). 근원섬유 단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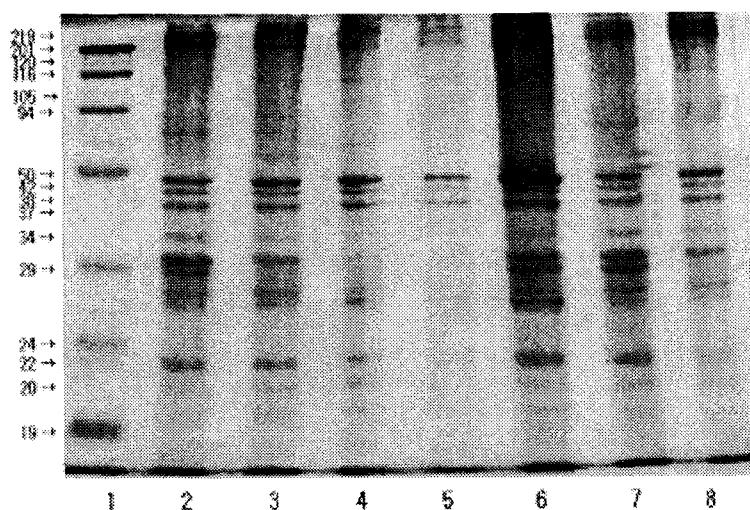


Fig. 3. SDS-PAGE profile of myofibrillar protein/sodium caseinate mixture as affected by incubation time and temperature.

1=marker, 2~5= 37°C, 6~8=4°C, 2=0hr, 3,6= 0.5hrs, 4,7= 2hrs, 5,8=4hrs.

질의 경우 37°C에서 배양했을 때 30분까지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, 2시간부터 24, 30 kDa의 밴드가 점차적으로 사라졌다. 반면에 4°C에서는 37°C 배양한 것보다 더 선명한 밴드를 형성하였지만 동일하게 2시간 배양할 때부터 24, 30 kDa의 밴드가 희미해져 감을 알 수 있었다. 카제인 염의 경우 37°C에서는 점차적으로 36 kDa의 밴드가 소멸되면서 고분자 biopolymer가 형성되었지만 4°C에서는 더 선명한 밴드를 보이며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. 근원섬유 단백질/카제인염 단백질의 혼합액의 경우 37°C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24 ~ 29 kDa의 밴드가 희미해져 감을 알 수 있었고 2시간 경과했을 때는 38 kDa 이하의 밴드가 대부분 소멸됨을 알 수 있었다. 37°C에 비하여 4°C일 때 MFP와 SC가 뚜렷한 밴드를 나타냈으며 2시간까지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4시간 배양할 때부터 밴드가 사라지기 시작하였다.

요 약

근육 단백질과 우유 단백질간의 상호작용의 촉매제로써 TGase의 촉적화를 위한 온도와 배양 시간을 결정하고자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. 돼지 등심에서 근원섬유 단백질을 추출하였고 배양 온도는 4, 37°C로, 배양시간은 0, 0.5, 2, 4시간으로 설정하였다. 단백질의 열량분석, 점도, 젤 강도, 단백질 밴드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며, 그 결과 단백질 열량 변화는 각 단백질 별로 열량 변화 패턴이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근원섬유와 카제인 염의 혼합액은 각각의 단백질의 피크와 유사하게 나타났고 배양시간과 온도에 따라 차이를 보여 4°C에 비하여 37°C에서 열량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. 점도의 경우 배양하지 않은 것과 비교했을 때 37°C에서 2시간 배양했을 때부터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며 증가했으나 4시간 배양한 것과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. 전기영동의 경우에도 37°C에서 30분 배양한 처리구는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2시간부터 저분자의 밴드가 소멸되고 고분자의 biopolymer를 형성되었다.

참고문헌

1. Kilic, B. *Meat Sci.*, 63:417–421(2003).
2. Tseng, C. S., and Lai, H. M. J. *Food Sci.*, 67(2):750–755(2002).
3. Fox, P. F. and McSweeney, P. L. H. *Advanced Dairy Chemistry*, Volume 1, Protein, 3rd ed(2003).
4. Ramiraz-Suarez, J. C., and Xiong, Y. L. *Meat Sci.*, 65:899–907(2003).
5. Ramiraz-Suarez, J. C., Addo, K., and Xiong, Y. L. *Food Research International* 38: 1143–1149(2005).
6. Keeton, J. T. *Proceedings of the Recipr. Meat Conf.*, 49:23–31(1996).
7. Laemmli, U. K. *Nature*, 227:680–685(1970).
8. Lowry, O. et al., *J. Biol. Chem.* 193:265–275(1951).
9. Brunton, N. P., Lyng, J. G., Zhang, L., and Jacquier, J. C. *Meat Sci.*, 72:236–244 (2005).
10. Xiong, Y. L., J. *Food Biochem.*, 16: 217–22 (1993).